

## 葬墓文化 인식개선을 위한 自然葬 홍보운동

- 묘지로 인한 연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자연장 홍보운동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장묘문화 인식개선 및 자연장(自然葬)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평소 생각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후원 : 보건복지부 (자연장 제도시행 / 2008. 05. 26)

###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자연장홍보운동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4 한국사회복지회관 2303호 ☎1533-0189 / (02)3785-3456

【 본 홍보운동에 적극 참여할 뜻으로, 아래 설문에 응합니다 】

2023 년 월 일 소속기관 : 성 명 :

◆ 해당란에 ✓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 남 ( ) 여 ( )
2. 연 령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이상 ( )
3. 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장(自然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예 ( ) 아니오 ( )
4.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화장 문화가 일반화 되었으면 한다.  
예 ( ) 아니오 ( )
5. 나 또한 사후 자연장(自然葬)에 적극 동의한다.  
예 ( ) 아니오 ( )
6. 분묘 및 납골당 관련 석조물 등은 사회적 비용은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예 ( ) 아니오 ( )
7. 자연장 장려를 위한 화장 장려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을 희망한다.  
예 ( ) 아니오 ( )
8. 누구나 실비 이용이 가능한 순수 자연장 추모공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 ) 아니오 ( )
9. 자연장(수목장/화초장/잔디장)을 고려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예 ( ) 아니오 ( )
10. 범 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라고, 다른 이웃에게도 적극 권장 할 것이다.  
예 ( ) 아니오 ( )

- 설문 참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시된 의견은 葬墓文化 인식개선을 위한 自然葬 홍보운동 참고 자료로서, 정부의 자연장 활성화 정책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본 홍보운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복제를 금합니다.)

## 葬禮文化 先進化 方案(요약본)

### 가. 현황

- 우리나라의 장묘 관습은 매장중심 문화로서 연간 여의도 면적의 1.2 배에 달하는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과 산림 훼손은 물론 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 정부의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꾸준한 홍보와 계몽으로 70% 이상 화장을 하는 장례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중략

선진국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화장 문화의 증가추세에 따른 화장시설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 나. 문제점

1.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를 감안할 때 시설부족.
2. 복잡한 상례관습에 의한 의전 절차의 심적 부담.
3.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의 의식개혁
4. 의례절차에 따른 과대한 장례비용
5. 장례관련업의 제도권 확립 / 추모공원, 장례식장, 봉안당, 수목장, 상조회 등.

### 다. 대책 (제안)

1. 장례예식장 등 관련업체에서 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제정 등 지원 및 규제완화.
2. 생활덕목으로 이어져온 상례 관습 등 죽음에 따른 범국민 홍보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생활에 적합하도록 계몽선도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낭비적인 관행 자제 유도.
3. 화장 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제도 활성화 정책은 물론 사회 중요 지도층의 시범적인 역할 분담 또한 중요하다.
4. 우리의 장묘문화는 종교, 윤리, 전통관습, 무속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왔기에 점진적으로 대학, 교육원, 종교단체 및 노인단체 등에서“죽음의 대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나아가 선진화된 장례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제도권 확립에도 상당 기여할 것임.
5. 상례의 복잡한 의례로 인한 심적 부담은 물론 과대한 비용 부담 등의 요인으로 우리 서민생활의 지혜로서 이어져온 “상포계”로 부터 발생한 상조회가 국민생활의 일부분으로 확산되므로 인한 업체의 난립으로 일부 부실업체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유발되나 결코 필요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권 정립이 시급하다.
6. 사실상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어도 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규제완화가 절실하고 화장으로 인한 유골봉안 시설에 따른 비용은 물론 자연훼손을 줄일 수 있는 자연葬(수목장/화초장/잔디장)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회 복지사업단에서는 국토이용효율화를 위한 장례문화 선진화정책 구현에 적극참여, 장묘문화 인식개선 및 자연장 홍보에 따른 선도적인 역할 분담을 약속드립니다.

2009. 11. 09.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부단장 / 이중남 배상

☎ 1533-0189 / 02-3785-3456 책상전화

◆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관련자료 제출 문서로 관련협조에 참고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인구학적 특성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참여지역	(                      )지역

1. 오늘 진행한 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장례문화 설명회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오늘 처음이다.                      ② 비슷한 설명회에 참여해 본 적 있다.                      ③ 없다.

2. 평소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전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관심이 많다                      ② 조금 관심있다                      ③ 보통                      ④ 별로 관심없다                      ⑤ 전혀 관심없다

3.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매우                      ② 조금                      ③ 보통                      ④ 별로                      ⑤ 전혀  
도움이 됨                      도움이 됨                      도움 안됨                      도움이 안됨

4. 만약 위의 3번 문항에서 3, 4, 5을 선택하신 경우,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설명회를 통해 자연장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② 조금                      ③ 보통                      ④ 별로                      ⑤ 전혀  
도움이 됨                      도움이 됨                      도움 안됨                      도움이 안됨

뒷면에 계속...



6. 만약 위의 5번 문항에서 ③, ④, ⑤을 선택하신 경우,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설명회를 들어보시고 본인과 가족의 장례식으로 건전장례를 치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장례란, 허례허식을 배제한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를 의미함.)

-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잘 모르겠다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8. 만약 위의 7번 문항에서 ③, ④, ⑤을 선택하신 경우, 어떤 점 때문입니까?

9. 참여하신 설명회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알리고, 설명해주는 전문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10. 참여하신 설명회의 강의내용에 대해 처음 기대하셨던 것과 비교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11. 설명회를 주변친구 또는 지인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재단연합회

## 자연장 제도란?

자연장 제도는 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이 야기한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입니다.

## 자연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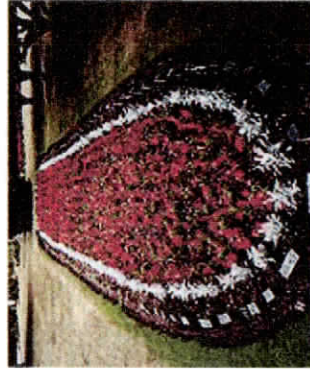
### 잔디형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잔디형 자연장이라 합니다.



### 화초형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화초형 자연장이라 합니다.



### 수목형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수목형 자연장이라 합니다.





정부는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자연장지를 조성(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자연장지는 조성불가지역(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녹색(\*)은 제도 완화를 통한 확대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장지 설치·조성 허용 지역]

## 자연장제도의 도입 경위

매장묘지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안장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 1.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2.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용기의 재질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
-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3)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 않은 토기 등)

### 3. 자연장지 내 제한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다.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4. 유의사항

조성 전 조성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

농지나 산지(임야)에 조성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 전용 신고·허가 또는 산지적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함  
자연장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의 장소 [바로가기](#)

#### 공설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수목림장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설치주체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공공 법인
사용대상자 제한	친족관계		종중, 문중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	제한없음



## 사설 자연장지

사설 자연장지는 운영 주체에 따라 개인·가족 자연장지, 종·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로 나뉘어 짐

### 개인·가족자연장지

개인·가족자연장지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써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 함

개인·가족자연장지는 2009년 64개소, 2010년 96개소, 2011년 151개소, 2012년 322개소, 2013년 도 427개소로 2009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

### 조성 사례



#### [ 창녕군 가족자연장지 사례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신고일 : 2014년

면적 : 99㎡

형태 : 잔디형



#### [ 옥천군 가족자연장지 사례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신고일 : 2009년

면적 : 99㎡

형태 : 정원형

### 조성절차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조성 신고(사후 신고제)

#### 구비서류

① 평면도, ②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④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

### 유의사항

자연장지 조성 이전에 자연장지 조성 가능여부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확인하여야 함



자연장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 함

##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면적이 2,000㎡ 이하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 함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2009년 50개소, 2010년 99개소, 2011년 171개소, 2012년 279개소, 2013년 371개소로 2011년 대비 200개소 증가

### 조성사례



#### [ 인덕원 가족공원 사례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2리

신고일 : 2008년

면적 : 605㎡

형태 : 잔디형



#### [ 포천군 종중 자연장지 사례 ]

소재지 : 경기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신고일 : 2012년

면적 : 1,999㎡

형태 : 정원형



#### [ 남해군 종중 자연장지 사례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신고일 : 2014년



#### [ 포천군 종중 자연장지 사례 ]

소재지 : 경기 포천군 차우면 추동리

신고일 : 2013년

## 전통장례절차

전통적인 상장례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절차들이 대 절차와 소절차로 구분되어 있어 자칫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많다.

유교식 상장례의 절차는 신주(神主)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주를 모시는 경우에는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조(弔),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靱),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의 19개 절차로 진행된다. 신주를 모시지 않는 경우 신주와 관련된 절차가 생략되고 상황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11-12개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

▶ 다음의 절차들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해당과정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일차

초종(初終)

습(襲)

2일차

소렴(小斂)

3일차

대렴(大斂)

4일차

성복(成服)

조(弔)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靱)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

모두열기

1일차

초종(初終)



초종은 ‘돌아가시다’라는 의미로 죽음을 맞이하는 절차이다. 다음과 같은 소절차가 있다.

위독하면 평소 거처하던 방으로 옮기는 천거정침(薦居正寢)을 한다. 주변을 조용히 하고 숨이 끊어지면 곡을 어지러이 하는 기절내곡(氣絶乃哭)을 하여 운명한 고인에 대해 슬픔을 표한다. 지금까지 이 절차에 대해 흔히 ‘임종’(臨終)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절차’, ‘고인이 운명하는 것을 옆에서 지키는 일’ 정도로 이해해 왔다. 저승으로 떠나가는 영혼을 부르는 초혼(招魂)인 복(復)을 한다. 예서에는 없지만, 집안에 따라서는 복을 마치면 사자밥을 차려 대문 앞에 내어 놓기도 한다. 설치철족(楔齒綴足)은 『家禮(가례)』에는 없으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의거하여 보입(補入)한 절차로서 당시 조선 사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치철족은 시신을 처리하는 최초 단계로서 일반적으로는 수시(收屍)라고 한다.

입상주(立喪主)라는 소절차는 상중에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절차이다. 상주,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 등이 그 역할이다. 역복불식(易服不食)은 옷을 바꾸어 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로 모든 복인이 관과 겹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는 절차이다. 설전(設奠)은 고인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전을 차려 제사를 올리고, 혼을 위한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는 절차이다. 이를 시사전(始死奠)이라고 한다. 부고(訃告)는 초상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 습(襲)

습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며, 반함하는 절차로서 시신을 정화하는 절차이다.

습구(濕球)를 버릴 구덩이를 파는 굴감(掘坎), 고인에게 입힐 수의를 진설하는 진습의(陳襲衣), 향탕(香湯)으로 시신을 깨끗이 정화하는 목욕을 하고, 얼음 위에 놓는 설빙을 한다. 이 설빙 절차는 『가례(家禮)』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습(襲)은 수의(壽衣)를 입히는 절차로서 이 때 습전(襲奠)을 차린다. 복인들이 자리를 정하는데, 이를 위위(僞位)라고 한다. 반함은 시신의 입에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이다.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고 깨끗한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

2일차

3일차

4일차